

# PART 0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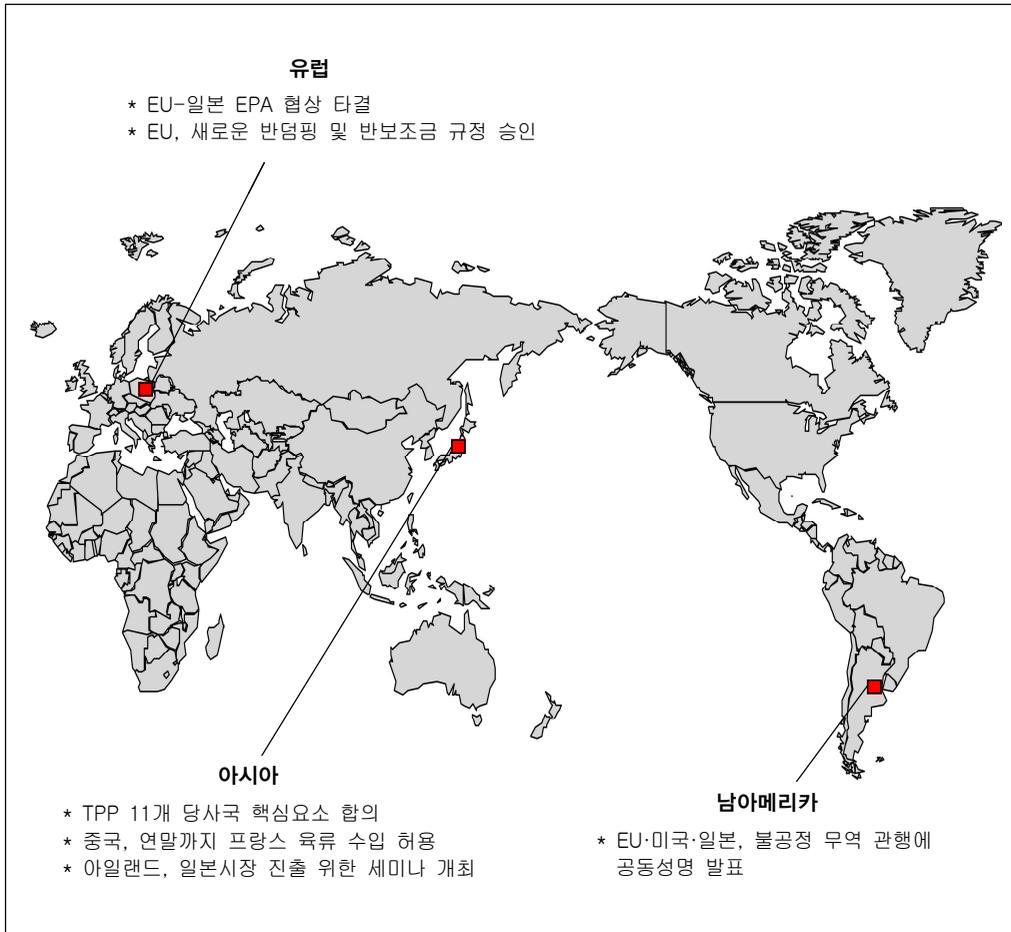


## 국제 농업 정보

1. EU-일본 EPA 협상 타결
2. TPP 11개 당사국 핵심요소 합의
3. EU · 미국 · 일본,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동성명 발표
4. EU, 새로운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정 승인
5. 중국, 연말까지 프랑스 육류 수입 허용
6. 아일랜드, 일본시장 진출 위한 세미나 개최



## 국제 농업 정보 (2017. 12.)



## EU-일본 EPA 협상 타결

### □ EU-일본 EPA 협상 타결

- EU와 일본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(FTA)인 경제연계협정(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, EPA)협상을 최종 타결함.
  - EU는 일본과의 경제협력협정 체결로 200개 이상의 지리적표시 보호와 함께 치즈, 와인, 쇠고기, 돼지고기 등 주요제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농식품 수출이 촉진될 것임.
- 양측은 EPA협상과 관련하여 지난 7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뒤 마지막 세부사항을 논의해왔으며, 입장 차가 남아있는 항목은 협정에서 분리하는 방식으로 협상 전체를 타결하기로 함.
  - 양측은 후속 조치를 마치고 서명한 후, 2019년 3월 영국이 EU를 이탈하기 전까지 EP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.
- EU 통상담당 집행위원(Cecilia Malmström) 12월 8일 일본과의 경제연계협정에 관한 최종 논의의 성공적인 결론을 발표함.
  - EU 농식품에 대한 관세가 약 85% 이상 철폐되어 EU 농민과 식품제조업체 등은 1억 2,700만 명 규모의 일본 소비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.
- 농업 및 농촌개발담당 집행위원(Phil Hogan)은 이번 협상이 농식품 무역에서 EU가 체결한 가장 중요하고도 광범위한 협상으로 EU 농식품부문의 거대한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환영함.

### □ 농식품 관련 소망

- 현재 29.8%를 차지하는 경질치즈인 고다치즈(gouda cheese)와 체더치즈(cheddar cheese)와 같은 치즈에 대한 높은 관세가 폐지되면서 치즈시장에서 EU의 지배적인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.

- 
- 모차렐라치즈(mozzarella cheese)와 같은 신선치즈를 위한 면세쿼터가 설정될 예정임.
  - 현재 평균 15%에 이르는 와인에 대한 관세도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즉시 철폐될 예정임.
    - 일본으로의 EU 와인 수출은 약 10억 유로에 달하며, 일본은 가치측면에서 볼 때 두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 시장임.
  - EU는 아시아 국가들로의 육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.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38.5%에서 9%로 낮아지고, 가공육과 신선 육류의 무관세 품목이 돼지고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
  - 파스타, 초콜릿, 코코아파우더, 사탕, 과자류, 비스킷, 제과류, 토마토제품 및 토마토소스 등 광범위한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할 예정임. 또한 맥아, 감자녹말(potato starch), 탈지분유, 버터, 유청(whey)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낮아지거나 철폐될 예정임.
  - 200여개 이상 품목의 지리적 표시가 보호될 예정으로 원산지에서 직접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이름을 표기하여 판매하는 것은 모방품으로 간주됨.
    -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에는 Roquefort, Aceto Balsamico di Modena, Prosecco, Jambon d'Ardenne, Tiroler Speck, Polska Wódka, Queso Manchego, Lübecker Marzipan, Irish Whiskey 등이 포함됨.

※ 자료: IEG Policy (2017.12.07.)

## TPP 11개 당사국 핵심요소 합의

### □ TPP 핵심요소 합의

- 11월 11일 제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sia-Pacific Economic Cooperation, APEC) 정상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 당사국들은 핵심요소(core elements)에 합의함.
  - 일본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베트남, 멕시코, 칠레, 페루 등 11개국 들은 TPP 출범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음.
  - 기존의 TPP 합의 내용 중 20개 항목은 미국이 복귀할 때까지 동결하기로 합의함.
- 주요 쟁점인 유제품의 저관세수입 축소 등 농업분야의 합의 내용은 수정하지 않지만, 미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(FTA)이 교섭에 들어가는 등 미국의 복귀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함.
  - 일본 정부는 향후 수정 가능한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설명하였으나, 실제 수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.
- 공개된 성명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명칭은 포괄적점진적 합의(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-Pacific Partnership, CPTPP)임.
  - 11개국 중 6개국이 국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60일 후에 발효됨.
  - 당사국 11개국은 말레이시아의 국영기업 관련 등 4항목의 최종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으며 연초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.
  - 일본은 2018년 통상국회에서의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11월 8일 공개 예정이었던 합의 내용은 일본, 캐나다, 호주 등 일부 국가의 불일치로 지연되었음.
  - 특히 일본은 TPP 협상에 대해 신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반면, 캐나다는 빠른 합의보다 올바른 합의가 중요하다고 신중을 기하며 일본과는 현저한 입장차를 보임.
- 공동회장 일본과 베트남 양국 장관은 11월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결

- 
- 항목을 포함한 신탁정 각료 성명을 발표함.
- 미국이 복귀하기까지 동결하는 20개 항목은 의약품의 데이터 보호기간이나 저작권 보호기간 등 규칙 관련이며, 관세 관련 분야는 동결이나 수정하지 않음.
- 일본의 TPP담당 장관 모테기 토시미츠(茂木敏充)는 금번 합의는 ‘TPP 12’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미국의 복귀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함.
- 새로운 협정 CPTPP 제6조는 만약 일본-미국 FTA가 교섭에 들어간다면 기존 TPP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가가 요청하면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.
- 성명서를 통해 필요시 개정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공유했다고 언급하였으며,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규정 언급이 미래의 농업분야 합의 내용 수정을 위한 이중 담보가 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함.
  - 그러나 각국이 개정 관련 협의에 응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정을 인정할지는 보장할 수 없음.
- 일본 농업관계자는 TPP 11을 둘러싸고 유제품 저관세수입 축소나 쇠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(safe guard)의 발동 수준을 낮추는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.

※ 자료: 日本農業新聞(2017.11.11.)

## EU·미국·일본,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동성명 발표

### □ EU·미국·일본, 공동성명서 발표

- EU, 미국, 일본의 주요 무역 대표부는 3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에서 ‘세계 수준의 경쟁’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함.
  -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Cecilia Malmström, 미국 무역대표부 Robert E. Lighthizer, 일본 경제산업성 Seko Hiroshige(せこうひろしげ)가 성명에 서명하였으며, 12월 12일 각료회의 이후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준비함.
  -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WTO 제11차 각료회의가 개최됨.
- EU, 미국, 일본은 제3국 정부의 보조금 및 지원 등으로 악화된 일부 핵심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과잉생산에 대해 비판함. 또한 이에 따른 혁신적인 기술 창출,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이끄는 국제무역의 순기능 훼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.
  - 성명서에는 중국이 직접 거명되지는 않았으나, 중국의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관행과 공급과잉을 부추기는 정책 등 중국 경제시스템의 특징을 언급하며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함.
- 정부 개입으로 과도한 과잉생산, 국유기업에 의한 불공정 경쟁조건,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, 강제된 기술 이전 및 현지 부품 사용 요구, 데이터의 유통 규제 등을 글로벌 무역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함.
  - 제3국들에 의한 불공정한 시장 왜곡 및 보호주의적 관행들을 제거하기 위해 3자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선언함.

### □ 중국, EU의 새로운 반덤핑 방법론 및 규칙 비판

- WTO 장관 회의를 앞두고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EU가 심각한 시장 왜곡이 있는 국가 등에서 수입된 덤핑물품으로부터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새

---

로운 규정을 비판함.

- 중국은 ‘심각한 시장 왜곡’이라는 개념은 EU가 아날로그적인 국가접근을 지속하게 하며, 이는 잠재적으로 EU가 반덤핑 규제를 국제무역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남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지적함.
- 12월 초 EU는 새로운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제에 대한 비공식적 합의를 통해 원재료 및 에너지 가격이 왜곡된 국가로부터 덤핑으로 수입된 물품들에 대해 높은 관세장벽을 설정할 수 있게 규정함.

※ 자료: IEG Policy(2017.12.13.)

## EU, 새로운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정 승인

### □ 조사기간 단축과 높은 관세 부과

- EU 3대 기관인 EU집행위원회, 유럽의회, 이사회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제에 대한 조사를 가속화하고, 경우에 따라 덤핑물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 부과를 허용하기로 합의함.
  - 이는 지난 15년간 EU 반덤핑 정책의 중요한 사건으로, 10월 초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합의한 새로운 반덤핑 방법론에 따라 결정될 것임.
- 지난 12월 5일 EU집행위원회, 유럽의회, 이사회는 비공식 합의를 통해 소급관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수입된 덤핑물품에 대한 높은 관세장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.
  - 주로 덤핑물품은 원재료와 에너지가격이 왜곡된 국가로부터 수입됨.
- EU집행위원회는 2016년 11월에 심각한 수준의 시장왜곡이 있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덤핑 마진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발표함.
  - 이러한 과정은 중국 등 불공정한 경제시스템에 대한 논란과 국가의 경제 개입이 심한 제3국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.
- 새로운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정은 잠정조치 부과에 대해 현재 9개월의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함.
- EU 통상담당 집행위원(Cecilia Malmström)은 새로운 규정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힘.

### □ EU 반덤핑 방법론에 관한 WTO 논쟁

- 지난 11월 4일 EU이사회는 EU내 생산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면서 시장경제와 비시장 경제의 구분을 제거하여 계산하는 새로운 반덤핑 방법론을 공식적으로 지지함.

---

- 에스토니아 통상부 장관(Urve Palo)은 새로운 규정이 모든 무역 파트너가 왜곡되지 않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,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함.

○ 지난 10월 러시아를 비롯한 몇몇 WTO 회원국은 EU의 새로운 반덤핑 규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.

- EU의 새로운 반덤핑 방법론은 왜곡된 시장으로부터 수입된 덤핑 물품에 대해 EU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비판함.

※ 자료: IEG Policy(2017.12.06.)

## 중국, 연말까지 프랑스 육류 수입 허용

- 프랑스 경제부 장관(Bruno Le Maire)은 중국이 2017년 말까지 프랑스산 돼지고기 수입 확대를 허용할 것이며,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.
  -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월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과 프랑스 간의 고위급 경제 및 금융 회담을 통해 매우 구체적인 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힘.
- 중국은 2015년 11월 수행된 양돈장 감사 결과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, 중국 당국은 2017년 말까지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프랑스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함.
  - 중국은 프랑스산 돼지고기 수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함.
- 프랑스 경제부장관은 최근 중국 정부의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BSE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환영함.
- 양국은 양질의 제품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인정하면서, 중국 사료시장에서도 프랑스산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합의함.
- 또한 양국은 중국과 프랑스 간의 지리적표시(GI)의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집행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.
- 양국은 EU와 중국 간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.
  - 특히 투자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청정에너지, 환경보호 및 기후적응형 농업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의 금융협력을 촉진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함.

※ 자료: IEG Policy (2017.12.01.)

## 아일랜드, 일본시장 진출 위한 세미나 개최

- 아일랜드 통상 대표단이 일본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해 일본 도쿄에서 세미나를 개최함.
  - EU와 일본의 경제연휴협정(EPA)이 발효되기 전에 아일랜드산 농식품을 일본 시장에 알리는 것이 목적임.
  - 일본이 수입하는 쇠고기나 유제품은 주로 미국이나 호주 등 기존 수출국들이 일본 수입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임.
- 아일랜드는 'OG(Origin Green)'라는 인증을 강점으로 일본 소비시장을 확대할 계획임.
  - OG란 자연 그대로를 뜻하며, 모든 식품과 관련된 생산, 가공, 유통 등에 걸친 관계자들이 환경 파괴 없이 생물다양성과 자원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생산하자는 취지의 범지구적 환경프로그램임.
  - 아일랜드 식품부 장관(Tara McCarthy)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에 566개의 기업이 참가하여 1,600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, 그 와중에 생물 다양성 관련 목표는 95개임.
  - 아일랜드 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OG 프로그램으로 아일랜드 중부의 한 축산농가는 쇠고기 1kg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.9kg 감소시켰다고 함.
- 아일랜드 식품부 장관(Tara McCarthy)은 매일 100명 이상의 독립적 감사관이 농장을 방문하여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, 그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공유하여 농가는 스스로 농장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함.
- 아일랜드는 500만 명의 인구가 3,500만 명분의 식량을 생산하는 식량 수출 대국이며, 아일랜드 농식품수출의 90% 이상은 OG 회원들이 생산하는 것이라고 함.
- OG를 강조하는 아일랜드 측의 설명에 품질과 가격을 중시하는 일본 수입업자들은 미온적 반응을 보임. 그러나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

시한 아일랜드가 일본시장에서 다른 수출국과 어떻게 차별화하여 경쟁하게 될 지, 일본 농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보아야 함.

※ 자료: 日本農業新聞(2017.11.19.)

자료작성: 홍예선 연구원